

“예산 14조 깎자는 한국당, 어느나라 정당인가”

민주당 최고위 회의...이해찬 “이성 찾기 바란다” 비판 한국당 “정부 정책 폐기 앞장”...靑 회동 하루만에 대립각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에 뜻을 모았지만, 국회에서 여야의 대치 국면은 계속됐다.

내년도 예산안과 페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개혁법안 등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삭감 주장과 ‘막말 논란’을 두고 맹비난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정부예산안 14조5000억원 삭감”을 주장하는 한국당을 겨냥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은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고집했다. 이인영 원내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한국당은 서민 등을 휘게 하는 진짜 등골 브레이커 정당”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반면 한국당은 인기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에 화력을 집중하며 더욱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끝 바를 화려한 독버섯 같은 정책들, 국민을 현혹해서 오직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게 목적인 정책을 폐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맹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날 노영민 비서실

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이른바 ‘청와대 3실장’의 기자회견을 겨냥해 “낭떠러지로 향하는 고속도로임을 알고도 엔진을 더 세게 밟겠다는 것”이라고 혹평을 쏟아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집권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야당에 대해 일반적으로 합의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고 고안했다.

여야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굵직한 국회 일정들을 감안할 때 여야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마주 앉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안 법적 처리시한이 3주 뒤인 내달 2일로 못 박혀있는 데다, 페스트트랙 선거

제 개혁안(11월 27일)·검찰개혁법안(12월 3일) 등의 분회의 부의 시점도 압박했다.

이에 따라 12일 열릴 문 의장과 원내대표 회동을 기점으로 여야 교섭단체 ‘3+3(원내대표 외 1인)’ 협상,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 등 테이블의 재가동과 관련한 논의가 순차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과 만나 “예산 문제는 예결위 예산소위가 구성됐지만, 페스트트랙 관련 법안은 어디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5당 대표 모임인 초월회의 연정선에 있는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의 가동 등을 통해 좋은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513조 예산전쟁 돌입

예결위 심사 착수...송갑석 의원 지역 예산 확보 주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사업별 예산의 삭감·증액을 결정하는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이다. 예산소위는 예산안의 최종 결의가 예정된 오는 29일 이전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예산안 사수를 목표로 한 여당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이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14조5000억원을 순삭하겠다는 입장인 데다 사업별로 증·감액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예결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 15명으로 예산소위를 구성했다. 민주당에서는 전해철·임종성·맹성규·강훈식·송갑석·최인호·김현권의원이, 한국당에서는 김재원·이종배·정용기·이현재·박완수·송인석 의원이 예산소위 위원으로 참

여한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지상욱·신용현 의원이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내년 광주·전남지역 국고 예산 지킴이 역할은 민주당 송갑석 의원(서구갑)이 맡는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심사 첫날부터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위원장의 ‘막말’ 논란으로 정화되는 등 파장을 빚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최근 당내 행사에서 ‘이해찬 대표가 2년 안에 죽는다’는 택시기사의 발언을 전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재원 위원장은 “누구를 비방하거나 공격을 하려는 의도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맞섰다.

사과 요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개의 11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고 오후 3시부터 회의가 속개됐다. /임동욱 기자 tuim@

“징계 의원 윤리위 강제 개최·국민소환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민주당 의총 국회 혁신안 발표...회의 결석 패널티에 반론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박주민 위원장)가 추진 중인 국회 혁신안에 관해 토론했다. 특위의 잠정안 보고 뒤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는 반론도 일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박주민 위원장의 사회로 김종민·김경철 의원 등이 (혁신안의) 각 분야에 대해서 설명했고, 박 위원장도 국민소환제 등 (혁신안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며 “이 과

정에서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 위원들은 지난달 31일 국회 의회를 10% 이상 빠지면 ‘출석정지’ 처분을 하고 재적의원 수에서도 제외하는 내용, 법안을 상임위원장·간사 합의로 상정하던 관행을 폐지하는 내용,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발표했다. 아울러 특위는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윤리위 개최를 강제하는 방안, 정당의 회의 집단 보이콧에 대해서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을 검토 중이

다.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도 특위 잠정안에 포함돼 있다.

특히 이날 의총에서는 회의 결석에 대한 ‘패널티’를 둘러싸고 의원들의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의정활동이 꼭 상임위나 본회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지역업무나 의원외교 등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론으로 나왔다

정당의 회의 집단 보이콧에 대한 패널티 문제와 관련해서 “이 자체를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도 나왔다. 나아가 “국회가 정치집단인데 정치의 공간을 상당한 정도 남겨야 하며, 구체적인 제도와 벌칙을 통해 규격화, 구조화

하는 것이 옳느냐”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변인은 “윤리위의 상설화 등 동의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몇 가지라도 당론으로 발의하고, 나머지는 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추진하자(논의가 있었다)”며 “다음 주 정도면 (더 정리된) 특위의 방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혁신 자체에는 찬성하는데 본질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라며 “디테일을 넣을 것인가, 포괄적으로만 (규정) 할 것인가의 부분에서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주춤해진 ‘보수통합’

변혁 “신당 창당 매진”

자유한국당과바른미래당비당권파인 ‘변화와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보수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통합추진단’(가칭) 등 실무진을 지정하는 등 서두르는 모양새지만, 변혁 측은 ‘제3지대’에서의 중도보수 신당 창당에 우선 매진하겠다는 흐름이다. 이러한 온도차는 양측이 주로 내세우는 ‘통합 구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는 분석이다. 한국당은 ‘보수통합’을, 변혁 측은 ‘보수재건’에 목소리를 높

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양측이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당은 우리공화당을, 변혁 측은 안철수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탄핵에 좀 더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변혁 측이 통합에 미온적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국당이 보수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조만간 탄핵 등을 포함해 우리공화당과 변혁 사이에서 양자택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국가폭력 치유센터 궤도 오르나

천정배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안’ 행안위 상정

제4·3사건, 5·18민주화운동, 고문조작 등 국가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토록하는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건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 을)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광주 5·18과 제4·3 등 국가 폭력 피해자들은 수십 년간 정신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왔지만 국가는 치유의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정부는 조속히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4월 광주시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은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센터’ 설립에 공감했으나 근거 법률이 없어 현재 광주시가 운영 중인 광주트라우마센터를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로 운영키로만 결정된 상황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2억 현 사우나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광주 동구 학동 (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토지 : 770.1㎡(232.95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8억 학동 아이파크 인근 대로변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인근

광주 남구 주월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306㎡(64.61평) 건물 : 494.4㎡(149.56평)
지상4층 매매가 9억3천만원 삼육고 인근 푸른길도서관 앞 공실없음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공 장 ▶ 광주 광산구 고동동 토지 : 1705.3㎡(515.9평) 건물 : 1358.46㎡(410.9평)

주 택 ▶ 광주 북구 장등동 41번지 토지 : 598㎡(180.9평) 건물 : 263.04㎡(79.6평)
지상3층 감정이 4억7천8백만원 최저가 3억3천5백만원

근린주택 ▶ 광주 북구 두암동 894-8번지 토지 : 150.3㎡(45.5평) 건물 : 318.9㎡(96.5평)
지상3층 감정이 3억5천8백만원 최저가 3억5천8백만원

근린주택 ▶ 광주 광산구 우산동 1065-4 토지 : 1131.8㎡(342.4평) 건물 : 894.38㎡(270.5평)
1층 제조업소,물류창고 2층주택 감정이 1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13억2천1백만원

아 파트 ▶ 광주 북구 용봉동 상용예가 54평형 감정이 5억6천만원 최저가 3억9천2백만원

아 파트 ▶ 광주 광산구 장덕동 대방5차 49평형 감정이 6억4천5백만원 최저가 (70%) 4억5천2백만원

아 파트 ▶ 광주 서구 쌍촌동 푸르지오 47평형 감정이 7억2천1백만원 최저가 5억4백7십만원

아 파트 ▶ 광주 남구 봉선동 더셀2단지 54평형 감정이 11억2천6백만원 최저가 7억8천8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